

마한 최대 규모 분구묘 고창서 확인

봉덕리 고분군 3호분 시·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수직성토·격자망 구획 의한 구획성토 흔적 뚜렷

고창군이 8일 오전 '점북마한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시·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시작으로 지정된 고창 봉덕리 고분군(1, 2호분)과 같은 구릉에 위치한 3호분에 대한 시·발굴조사로, 이번 학술조사 성과를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했다.

조사는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사적 확대 지정과 더불어 마한고분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9년~2022년 시굴조사가 진행됐고, 올해 2월부터 분구의 북서쪽 사면부에 대해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됐다.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은 규모가 남북 85m, 동서 70m에 달한다. 우리나라 마한 분구묘(墳丘墓) 흙 등을 쌓아 올린 다음 그 안에 매장시설을 설치하는 마한의 무덤양식)중에는 가장 크고, 분구의 축조는 모두 2차례에 걸쳐 높게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형의 성토층에서 기원후 3세기 중·후반대의 매장시설(통나무관, 목관)과 토기 등이 출토됐다. 이후의 5세기 중·후반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5m 내외로 높게 쌓아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는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분구묘와 유사한 분구 축조 양상이다.

이번 발굴조사의 성과는 3호분의 분구 축조 방식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즉, 격자 상으로 구획한 다음 성토 경계를 토괴(土塊, 흙덩이)로 구분하여 쌓아 올렸는데, 점토와 사질(질) 토를 번갈아 가면서 쌓고 있어 판축기법도 어느 정도 반영했으며, 서쪽 사면의 경우 단단하게 다져진 상태다.

또한, 3호분 조사에서는 1호분과 같은 돌방무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형 분구 성토층(3



봉덕리 고분군 3호분 발굴조사 지역 전경.

세기 중후반경)에서 추정 통나무관, 토광묘이 조사됐다. 후행의 대규모 분구 성토층에서 5세기경의 옹관 등이 확인됨에 따라 3호분은 250여년간 지속적으로 조성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흙덩이를 이용해 쌓아 올린 분구묘는 영산강 유역권(나주 장동리고분, 복안리 3호분, 신촌리 9호분, 무안 고철리고분, 덕암고분, 영암 자라봉고분, 해남 만의총 3호분, 영암 옥야리 방대영고분 등)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마한 분구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수직성토 및 격자망 구획에 의한 구획성토의 흔적이 뚜렷한 곳은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이다.

앞서 2009년 이뤄진 고창 봉덕리 1호분 조사에선 돌방무덤(석실) 5기, 옹관 2기 등이 발견

됐었다. 이 중 4호 돌방무덤에서는 금동신발(보물)을 비롯한, 중국제청자, 죽엽형 은제머리장식 등 마한 모로비리국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위세품 등이 출토되어 2015년 시작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규모 토목공사 방식으로 초대형 무덤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마한문화의 최성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마한 고분의 축조방식과 변화, 성격 등을 통해 사적 확대를 추진하고,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계획을 통해 인근의 만동유적(도기념물), 태봉(예지리) 토성 등 마한 역사유적들을 포함한 학술조사 및 유적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태권도원 1·2월 방문객 역대 최다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등 만족도 높아

1월과 2월, 태권도원 방문객이 역대 최대치인 4만 명에 육박하는 등 관광 비수기 겨울철이 무색하게 문화 관광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올해 태권도원 연간 방문객 목표를 32만 명으로 잡은 가운데, 1월과 2월 방문객만 3만8,123명으로 역대 동월 실적을 뛰어넘는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동 기간 역대 최다 방문객 수는 16년도 3만2,580명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해 21년도에는 9,006명에 그친바 있다.

하지만 재단은 시기에 관계없이 태권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태권스테이와 같은 상품 개발



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 태권스테이는 태권도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 지역 관광 등이 결합된 상품으로, 현재 3월 판매분 중 25일을 제외한 전체가 매진 상태이다. 특히 태권스테이 이용객들이 매진 '품질 만족 지수'에서 98점을 보이고 있는 등 가족, 친구 단위의 소규모 관광·여행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품으

로 대히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70만평 공간을 활용한 동계 전지훈련단 유치 활동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철저한 안전 관리, 직원 대상 친절·위생 교육 등의 노력도 한 몫 했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원 방문객이 급증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방문객에게 100%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한 재단과 자회사 전 직원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이다"며 "올봄 개장을 앞둔 야외 복합체육놀이시설 '플레이얼'과 전통무예수련·전망대 등의 콘텐츠가 있는 '상징지구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본격화되면 더욱 많은 관광객과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태권도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기본에 더욱 충실한 태권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流 조갑녀' 서울남산국악당서 열린다

남원이 낳은 명무 故 조갑녀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살풀이춤'의 대가 고 조갑녀 명인을 기리는 '조갑녀'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인 '流 조갑녀'가 오는 11일 서울 남산국악당·조갑녀전통춤 보존회 공동기획으로 서울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진다.

故 조갑녀 명인은 1923년 남원에서 태어나 1929년 경 궁중에서 춤을 췄던 이장선 명인으로부터 '승무'와 '검무'를 배웠다. 제1회 춘향제인 1931년부터 1941년까지 매년 행사에서 승무와 검무, 살풀이 춤을 취주목받았으며, 2016년에는 국립 무형유산원으로 살풀이춤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 하았다고 평가를 받았다.

공연프로그램은 중 팔목할 춤은 궁중무에 바탕을 두고, 8개의 음악의 이치를 지키면서 우리가락을 집대성한 춤인 △승무, 수건을 들지않고 민손으로 추는 살풀이춤으로 즉흥성이 매우 강한 △민살풀이 춤이다. 이외에도 △완월연정(산조춤), 예스러운 한, 멋, 흥을 담아내어 풀어내는 △월하정인(부채춤), 남원 춘향제 및 거도적인 행사를 장식하였던 △남원검무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또한 채상소고 춤의 명인 김



운태의 특별한 공연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조갑녀 명무의 딸 정명희가 '조갑녀 전통춤 보존회' 대표로서 故 이장선, 故 조갑녀의 뒤를 이은 춤맥을 계승하고 있으며, 옛 법도의 고재춤과 더불어 옛가락에 거슬리지 않게 새가락을 넣은 춤도 엮으며 고조갑녀의 춤맥을 잇고 있다.

명인의 고향 남원 예촌에 위치하고 있는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은 조갑녀(1923~2015) 명인이 살던 금난관을 복원하여 만들었으며, 생전에 사용한 유품과 공연사진, 영상 등 기록품과 수집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故조갑녀 명인의 숨결을 더욱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최북미술관 기획전 '서로 다른 풍경' 개최

무주군은 2023 최북미술관 기획전 '서로 다른 풍경'을 열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소재의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4일 동안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실에서 평면 회화전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전에는 참여한 작가들은 류재현, 송만규, 이기홍, 이흥규 작가로 모두 풍경을 주제로 한 평면회화 14점이다.

류재현 작가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과 파리,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녹음 짙은 숲길이나 자연풍경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펼친 작가는 서양미술에 동양정신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송만규 작가는 '섬진강 화가'로 불린다. 두만강을 수목

채색으로 화폭에 담아낸 국내 최초의 작가로 강물을 따라 우리 민족의 거대한 서사시를 담아낸 작가다.

이기홍 작가는 전주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과 광주 등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붉고 푸른 대숲의 모습을 통해, 시련에 굴하지 않는 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이흥규 작가는 전주대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자연풍경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시각화한 현대 산수로 절제된 여백의 아름다움을 비워낸 작가이다.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로움과 바람까지도 느껴지는 정적인 안정감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봄맞이 기획 할인전

전주공예품전시관이 기획 할인전 '사면춘풍-봄맞이 가득한 공예'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면춘풍(四面春風)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란 의미의 사자성어다.

기획할인전의 상품은 스카프, 브로치, 커피잔, 화병 등 10여 종이다. 특히, 지난해 말 신규 입점된 브랜드의 공예품도 일부 포함됐다. 신규 입점 상품인 '지수 브로치'는 공예가가

직접 한 뼘 한 뼘 수놓은 꽃자수가 담긴 브로치로, 이번 기획 할인전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위한 포장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기획전 상품을 포함해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도자 상품인 '청화 드로잉 수제반침'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획 할인전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구매는 현장 또는 명인몰(jshop.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